

# 웅진홀딩스, 태양광 타고 흑자 달성

웅진에너지, 영업이익 50% 증가 ... 2010년 웅진케미칼 해수담수화 기대

웅진홀딩스는 2009년 영업이익이 615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2009년 매출액이 3095억원으로 전년대비 208.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웅진그룹 전체로는 매출 4조5755억원, 영업이익은 4243억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3.8%, 5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은 2009년 영업실적 개선이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일찌감치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선도한 성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가 매출 1조4119억원에 20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태양광 전문기업인 웅진에너지도 매출 1189억원에 영업이익 565억원으로 각각 75.7%, 51.1% 성장했다.

2010년에는 웅진코웨이의 수처리 및 웅진케미칼 해수담수화 등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트 사업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력시장 진출과 종합 수처리 플랜트 수출도 추진하는 등 신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광수 대표는 “2009년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내실경영으로 그룹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며 “5년 전부터 투자했던 태양광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0년에는 30주년을 맞는 웅진그룹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3>